

생생리포트

■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

강현주(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)

■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

박지희(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)

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

강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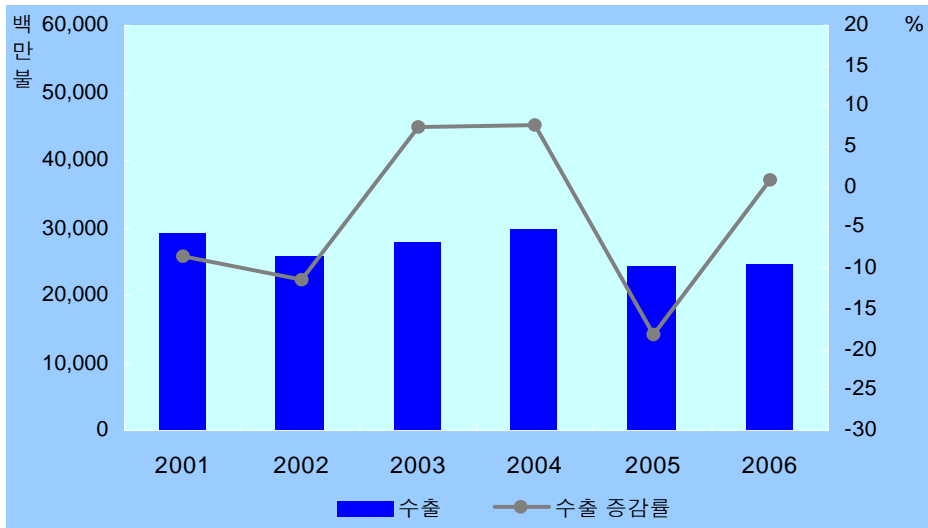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

paranbadah@sdi.re.kr

I. 최근 5년간 서울의 수출 동향

1. 서울의 수출 변화 추이

- 2001년부터 현재(2006년말 기준)까지 서울의 수출은 전년대비 연평균 3.7% 감소하여, 2006년말 현재 247억1,756만4,000불을 나타냄
 -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4년으로, 2004년 서울의 수출액은 299억2,396만4,000불을 기록함
 - 2001년 이후 서울의 수출액이 급증했던 시기 역시 2004년으로, 전년대비 7.8% 증가하여 최고치를 나타냄
 -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수출액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05년으로, 2005년 서울의 수출액은 244억485만9,000불을 기록함
 - 2001년 이후 서울의 수출액이 급감한 시기도 2005년으로, 전년대비 18.2%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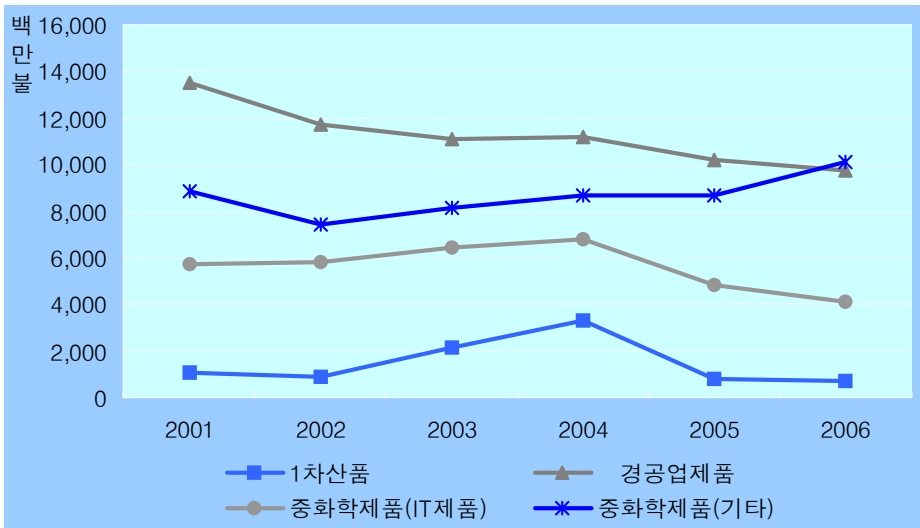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1〉 서울시 수출액 추이(2001~2006년)

2. 서울의 항목별 수출 추이

- 2001년부터 현재(2006년말 기준)까지 서울의 산업별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, 중화학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, 그 다음은 경공업제품, 1차산품 순으로 수출액이 높음
 - 2001년 서울의 산업별 수출은 중화학제품이 145억9,617만2,000불로 가장 많고, 경공업제품은 135억1,287만3,000불, 1차산품은 10억4,552만1,000불로 나타남
 - 현재(2006년말)는 중화학제품이 142억992만6,000불을 나타내고, 경공업제품은 97억5,233만3,000불, 1차산품은 7억5,530만5,000불로 나타나 경공업제품과 1차산품은 2001년에 비하여 각각 27.83%, 27.76%씩 크게 감소함
 - 대부분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, 중화학제품 중 기타제품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대비 13.7% 증가율을 나타냄
- 국가별로는 미국, 중국,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함
 - 對미국 수출은 2004년까지 서울의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1년 이후

-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05년 급격히 감소하여, 현재는 2001년 대비 49.6% 감소함
- 對중국 수출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對미국 수출액을 앞서 서울의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현재는 2001년 대비 26.9% 증가함
- 對일본 수출은 2003년과 2004년에 주춤하였으나 현재는 미국, 중국 다음의 수출국이고, 對일본 수출이 주춤하였던 2003년과 2004년에는 對홍콩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으로의 수출액과 비슷한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다시 급격히 감소함



<그림 2> 서울시 산업별 수출액 추이(2001~2006년)

<표 1> 서울시 주요 품목별 수출 변화(2001~2006년)

(단위: 백만불)

순위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
계	합계 29,154	합계 25,862	합계 27,769	합계 29,923	합계 24,484	합계 24,717
1	의류 3,422	의류 3,141	무선 통신기기 3,276	무선 통신기기 4,066	무선 통신기기 2,047	편직물 1,922
2	반도체 2,946	반도체 2,456	의류 2,857	의류 2,578	의류 1,800	반도체 1,896
3	편직물 1,698	무선 통신기기 2,134	편직물 1,878	편직물 2,537	금은 및 백금 1,780	의류 1,467
4	무선 통신기기 1,662	편직물 1,864	반도체 1,818	반도체 1,880	편직물 1,466	합성수지 1,171
5	인조장 섬유직물 1,584	인조장 섬유직물 1,365	금은 및 백금 1,476	인조장 섬유직물 1,317	반도체 885	고무제품 1,028

자료: 무역협회 (<http://www.kita.net/>)

<표 2> 서울시 주요 국가별 수출 변화(2001~2006년)

(단위: 백만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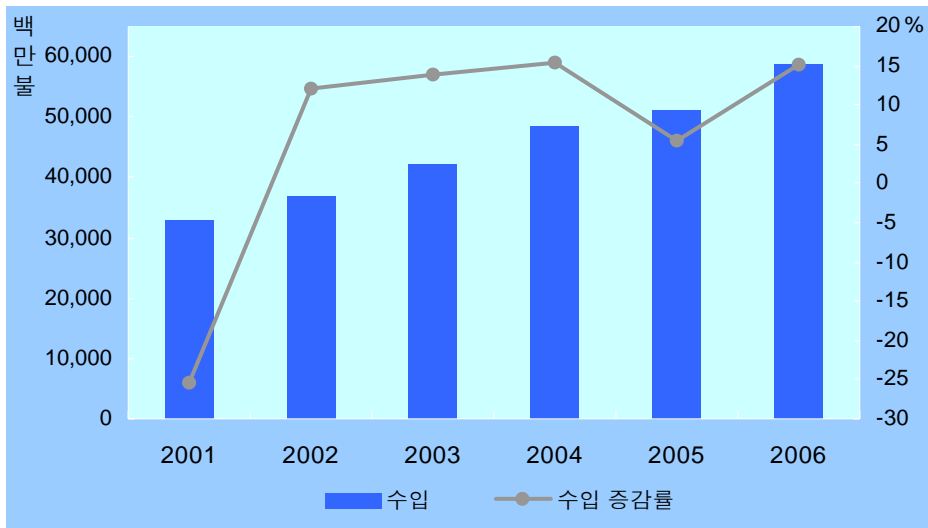
	2001		2002		2003		2004		2005		2006	
계	합계	29,154	합계	25,862	합계	27,769	합계	29,923	합계	24,484	합계	24,717
1	미국	6,406	미국	5,983	미국	5,888	미국	6,039	중국	4,878	중국	5,159
2	중국	4,065	중국	3,836	중국	3,998	중국	4,568	미국	4,031	미국	3,227
3	일본	2,904	일본	2,431	홍콩	3,500	홍콩	4,266	일본	2,523	일본	2,232
4	홍콩	1,806	홍콩	1,692	일본	2,158	일본	2,421	홍콩	1,441	홍콩	1,472
5	상파르	900	상파르	800	베트남	666	베트남	802	베트남	812	베트남	901

자료: 무역협회 (<http://www.kita.net/>)

II. 최근 5년간 서울의 수입 동향

1. 서울의 수입 변화 추이

- 2001년부터 현재(2006년말 기준)까지 서울의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연평균 6.1% 증가함
- 최근 5년 동안 서울의 수입액은 2001년 328억8,821만6,000불을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수입액은 2001년 대비 크게(78.7%) 증가한 587억7,491억6,000불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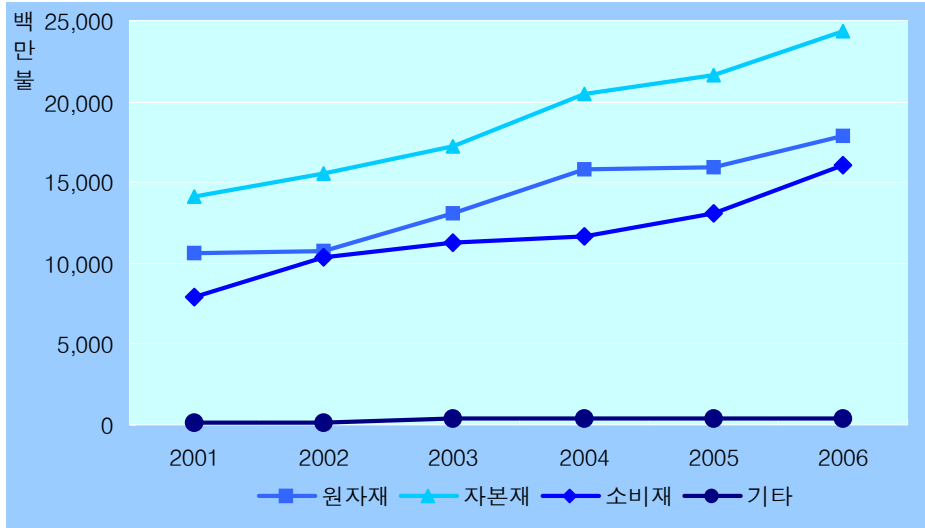


<그림 3> 서울시 수입액 추이(2001~2006년)

- 2001년 이후 서울의 수입액이 급증했던 시기는 2004년으로, 전년대비 15.3%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
- 2001년 이후 서울의 수입액이 급감한 시기는 2001년으로, 전년대비 25.5% 감소하여 최저치를 나타냄

2. 서울의 항목별 수입 추이

- 2001년부터 현재(2006년말 기준)까지 서울의 용도별 수입 변화를 살펴보면, 자본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, 그 다음은 원자재, 소비재 순으로 수입액이 높음
 - 2001년 서울의 용도별 수입은 자본재가 141억3,206만불로 가장 많고, 원자재는 106억8,522만불, 소비재는 79억5,646만3,000불로 나타남
 - 현재(2006년말)는 자본재가 243억4,538만2,000불로 가장 많고, 원자재는 179억981만6,000불, 소비재는 160억7,707만8,000불로 나타나 전항목이 2001년에 비하여 각각 72.3%, 67.6%, 102.1%씩 크게 증가함
- 국가별로는 주요 국가들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, 일본,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함
 -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, 對중국 수입은 2001년 이후 큰 증가율을 보이며 현재에는 2001년 대비 227.6% 증가하여 2004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을 제치고 서울의 수입국 1위를 차지함
 - 對미국 수입은 2004년까지 서울의 수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중국에 추월당하며 현재에는 2001년 대비 42.2% 증가율을 나타냄
 - 對일본 수입은 2001년 두 번째로 높은 수입국이었으나 중국에서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현재에는 2001년 대비 62.8% 증가하여 서울의 세 번째 수입국으로 나타남



<그림 4> 서울시 용도별 수입액 추이(2001~2006년)

<표 1> 서울시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(2001~2006년)

(단위: 백만불)

순위	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
계	합계	32,888	36,880	41,967	48,382	51,016	58,774
1	반도체	3,071	3,694	3,823	4,130	4,097	4,552
2	컴퓨터	2,894	2,947	3,306	3,349	3,992	4,495
3	의류	1,336	1,817	금은 및 백금	2,981	의류	2,909
4	유선 통신기기	1,006	석유제품	의류	2,181	항공기 및 부품	2,555
5	석유제품	845	항공기 및 부품	전자응용기기	1,637	자동차	2,035

자료: 무역협회 (<http://www.kita.net/>)

<표 2> 서울시 주요 국가별 수입 변화(2001~2006년)

(단위: 백만불)

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
합계	32,888	36,880	41,967	48,382	51,016	58,774	
1	미국	7,469	7,793	7,586	8,974	11,286	14,199
2	일본	5,658	6,491	7,409	8,540	8,862	10,621
3	중국	4,339	5,744	6,913	7,922	8,522	9,209
4	독일	1,373	1,784	2,219	2,586	2,880	3,422
5	대만	1,324	1,459	상하이	1,913	대만	1,666

자료: 무역협회 (<http://www.kita.net/>)